

Awakening to
God's Beauty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깨어나기

예수로 기도하는 사순절 초대

Awakening to God's

이 묵상집에 대하여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의 삶이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치유가 되고 마지막까지 치유의 삶으로 조금씩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 프레드릭 부케너 FREDERICK BUECHNER



Beauty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깨어나기

장로교 목사이자 저자인 프레드릭 부케너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즉, 절망과 부패, 그리고 쇠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묵상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주일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각”을 의미하는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의 영적 훈련을 하도록 인도받을 것입니다. 베네딕트회

훈련인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 “신성한 독서”와 비슷하게 —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묵상 될 때, 비지오 디비나는 대신에 이미지로 하는 묵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주 일요일의 그림과 함께 천천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명상입니다. 한주일 동안, 부활절을 향한 여행은 시편에서 말한대로 하나님의 사역과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크린 밴 태튼호브 KRIN VAN TATENHOVE 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크린 밴 태튼호브는 이 묵상을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현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려는 우리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Donna Frischknecht Jackson
Presbyterians Today 편집장



RANEY

JOHN RECTOR
JAN. 21. 1860
DEC. 14. 1911

MARY THRASHER
DEC. 29. 1858
APR. 25. 1920



3월 6일 재의 수요일

아름다움은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시편 8:1a

오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표식을 합니다. 우리는 친숙한 구절인 “
당신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들을 것입니다.

중세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알림으로 사용되는 사물의 단어는 우리
삶의 광기에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걱정과 분노, 분명히 사라질
사건에 대한 선입관 - 모두 우리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한편 시편 8편은 다윗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시며 우리 창조주의 위엄은 우리 주변에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테마 -인생의 간결함과
주님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는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 필요한 완벽한 지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엄이 도처에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숨을 깊게 마시고 들어갑니다.

묘지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의를 끌었던 한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분 후,

전체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감사의 말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습니까?

천국 너머에

천국 너머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
나이다. — 시편 8:1b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오염 된 곳을
찾으십시오. 담요를 땅에 펼치고 등을
가리고 밤하늘을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깎아 지른 광채가 당신의 영혼을
자극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무엇이 마음을 동여 시키는지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근위축^{PROXIMA CENTAURI}입니다. 4.2광년
떨어져 186,000 마일/초로 이동합니다.
우리 위의 다른 빛의 지점은 별이 아니라
전체 은하입니다. 1900년대 초 에드윈
허블^{EDWIN HUBBLE}이 처음 제안한 것처럼
우리 우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있기 훨씬 전에
다윗^{DAVID}이라는 목동 소년이 똑같은
하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며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하늘이 나타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담요를 접는 단순한 일을 함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기억을 일상 생활로
가져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영원한 관점으로 끌어들이는 그 광대함의
감각으로 당신을 채우십시오. 이 중요한
날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의 도달 범위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3-4

내 친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농촌
위스콘신의 여름 밤, 그는 가족의 농가를
벗어나 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안한 우주의 공간에
차가운 깊이가 느껴지고 본인의 삶이
어리석음으로 가득차서 누군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올바른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건축가가 그러한
사랑으로 내 작은 삶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는 것은 내적
확신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창조의 영광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시편 8
편 5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하계와 개인 생활을
모두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9일 토요일

올바른 생각의 다스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
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6

“도미니언(DOMINION)”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단어 도미누스(DOMINUS)
에서 “주님”- 그것은 주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이 행성을
통치하도록 하셨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는 지도력 모델에 반대하여
그것을 휘두릅니다. 지구로부터 서방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생물권의 모든 요소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파국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녹는 얼음 덩어리,
멸종되는 생명체 및 오염 된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대체 생활 방식을 고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스처럼 오리건
주에서 연어를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와 그의 팀인
버드나무는 컬럼비아 강의 지류에서
자랍니다.

연어가 나무 그늘에서 자라며 번식에
적합한 온도로 물을 식혀줍니다. 자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는 알렉스와 다른 모든 인간들이
사랑의 보살핌과 연민으로 주권을
행사함에 열중하도록 권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맡긴 이 행성을 지키려는
깊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First week in Lent

사순절 첫째 주

3월 10일 일요일

이번 주 주제: 영광을!

시편 19

“영광”이란 단어는 “장엄함” 또는 “홍륭함”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쉬키나(SHEKINAH)라고 묘사한 랍비들에 의해 야훼의 빛나는 존재는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지성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인간들로부터 내면의 성소를 갈라 놓은 천막이 두 개로 찢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순절 여행을 묘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광은 오직 영적인 선물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온전히 감각을 열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하나님의 영광은 사방에,
심지어는 거친 구름으로 덮인
거친 산 위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이 그림이 이끄는
것을 메모하십시오.

사진의 일부를 숙고하십시오.

몇 분 후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어떤 새로운 것이 보입니까?

이 그림은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월 11일 월요일

수공예 HANDIWORK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 시편 19:1

우리 모두는 수공예에 타고난 사람들을 압니다. 그것은 켈트, 목공예, 모자이크 또는 유리화 일 수 있습니다. 작고 복잡한 조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능력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디자인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의 날개에 무지개 빛깔의 무지개, 고산 돌멩이에 있는 이끼의 밝은 색, 우리 고양이와 깊은 눈 속에 담긴 빛, 또는 노인의 이마에 있는 지혜의 주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에서부터 애벌레 껍질로 표시된 나선과 같이 반복되는 지문, 우리 자신의 지문과 같은 나무의 나이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래알 속에 있는 세계/ 야생 꽃 안에 있는 천국/ 손안에 있는 무한대를 잡아라/ 한 시간 만에 영원함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대우주와 소우주 모두의 디자이너이시며, 이 영광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가득한 여행입니다.

영광스러운 창조주시여, 우리가 우리의 할당된 날을 걸을 때 주님의 수공예를 보기위해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3월 12일 화요일

숨겨진 언어를 듣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 시편19:2-4a

이것은 우리를 현재로 더 깊게 끌어들이는 신비한 말입니다. 창조론에는 담론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쏟아지는 조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무디 볼르스 MOODY BLUES의 60년대 록 밴드는 “화요일 오후 TUESDAY AFTERNOON”라는 상징적인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누군가 부르고 있다. 나무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유를 알아내야 해. 내가 듣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 주변의 침묵 속에서 숨겨진 언어를 듣는 것은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신비주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적 지식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 저널, 또는 시골에서의 조용한 산책 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예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시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한 훈련이 아니지만 의도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고요함 속에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3월 13일 수요일

기쁨의 순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 시편 19:4b-5

고대 그리스인은 태양을 동서로 하늘을 가로 질러 그의 화려한 전차를 운전하는 아폴로로 묘사했습니다. 그 신화가 오기 훨씬 전에 다윗은 다른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태양을 가리켜 임박한 결혼 생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천막에서 갓 나온 열정의 신랑과 같으며 그는 인생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떠오름과 설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반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행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매일 축하 행사입니다.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는 물 표면에서 춤을 추거나, 석양의 지평선 구름 위에 황금빛 색을 칠하며, 나무를 통해 흘러내리는 태양의 일몰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육체의 등불이다.” 주의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형태로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매일마다 그들의 등불을 훈련시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태양의 길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14일 목요일

하나님의 따뜻하심

…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시편 19:6b

나는 여행을 좋아하며, 고향인 텍사스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동굴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동굴 강하를 인도했던 가이드는 그들 자신들이 만든 간단한 연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지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모든 불을 껐습니다.

뒤따른 짙은 어둠은 옛말로 “나는 내 얼굴 앞에 있는 내 손을 볼 수 없었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숨막힌 상태에서 깜박거리는 빛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숨막힌 상태에서 깜박거리는 빛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편 19편에는 아무것도 태양의 열기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VIKTOR FRANKL은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조차도 고통스러운 철조망 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받은 기쁨을 그 어떠한 고통도 빼아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더 염두해 가면서, 그것은 우리 안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떨칩니다.

모든 것을 감싸시는 하나님 사랑의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15일 금요일

순수한 존경

…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 — 시편 19:9a

이 세상에는 순결이 거의 없다고 수차례 전해졌습니다. 인간의 오염은 우리의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사회는 불의와 권력의 부패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두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레^{YARE}는 경외심으로 더 적절하게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순수하게 영원토록 견디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빛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이 헌신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경쟁의 치열한 선입관을 밀어내고 성령님을 위해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함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성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한 예배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아멘.





3월 16일 토요일

마음을 보는 엑스레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시편19:12

예수님께서서는 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결코 우리의 동기의 핵심에 도달하지 않는 종교적 관행을 화를 내시며 질책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묘사했는데, 그들은 순결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종종 우월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사각 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생각하게 하는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현존의 엑스레이까지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아닌 성령은 우리가 궤도에 돌아와야 할 영역을 알려줍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Second week in Lent

사순절 둘째 주

3월 17일 일요일

이번 주 주제: 잔잔한 물가

시편 23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고요함을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소음의 불협화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스케줄의 지시에 의해 지배되는 미디어 장치에 꽃혀서, 우리는 종종 안식일의 필요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창조 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23편은 보편적인 문학 작품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의 페이지를 초월했습니다. 비록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축어적으로 그것을 암송할 수 있는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의 깊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구절을 통해 이번 주에 사순절 여정을 계속합니다.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고요한 물” 옆에 앉아 있으면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 몇 분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눈을
감고 반복하십시오. “고요히.”

이제 눈을 뜨세요. 당신이 처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사진의 일부를 숙고하십시오.

몇 분 후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요가 어떻게 당신의
중심에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명상을
마치십시오.

3월 18일 월요일

쓸데없이 “필요한 것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시편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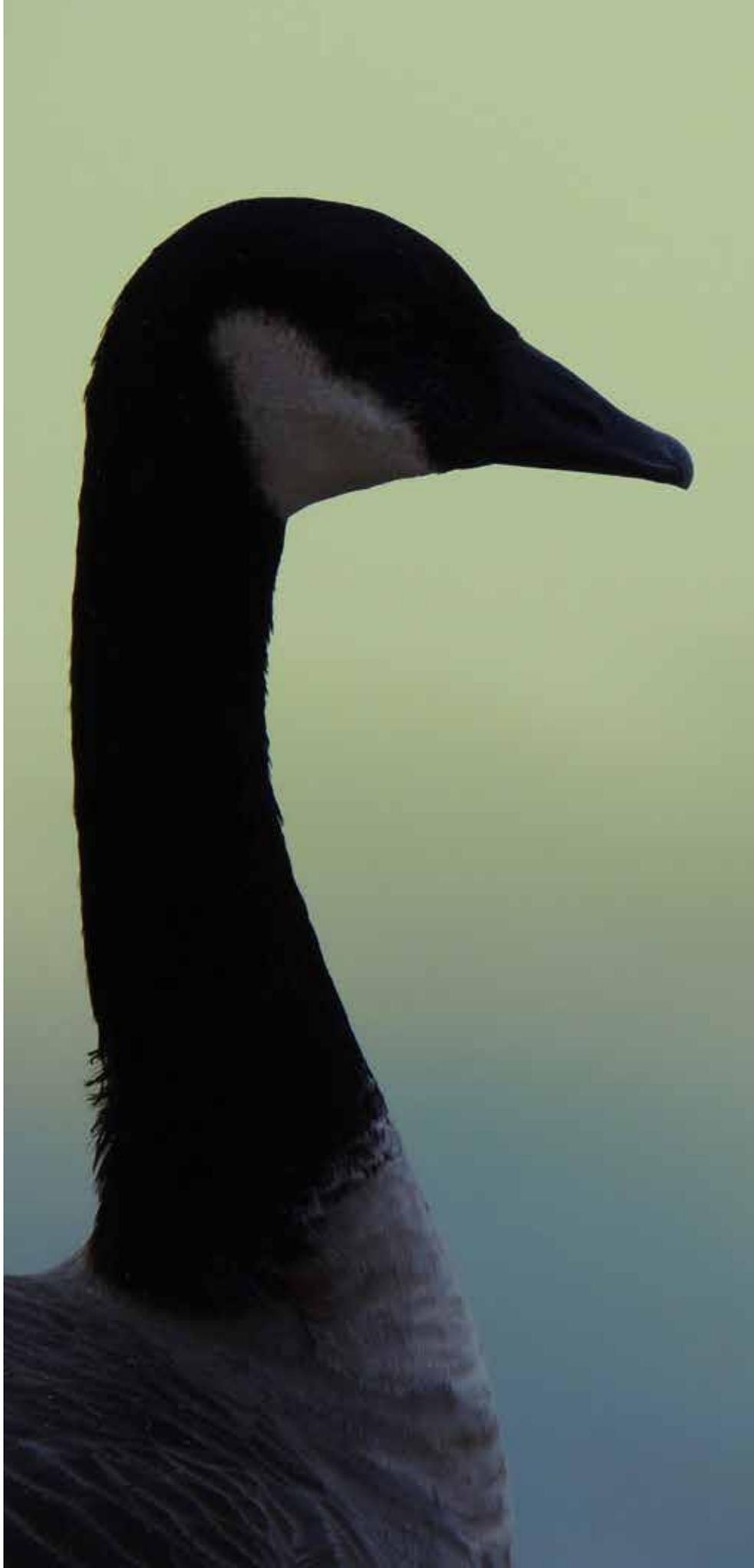
사랑받는 아동 도서인 로랙스^{THE LORAX}에서 수스 박사^{DR. SEUSS}는 “뜨니드^{THNEED}”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뜨니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불교의 부다는 궁극적으로 고난의 원인이 되는 환상적인 첨부물로서 이러한 욕구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은 더 많이, 더 나은, 더 빠른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완전하고 앞서감을 느끼고 싶다면 욕망을 갖고 소유를 위해 구입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흐리게 할 정도로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승인? 어떻게 든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 하기위해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정표? 더 많은 사물들? 상황이나 사람의 통제? 선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첫 구절로 이 갈망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의 번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와 같은 신뢰로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만족과 평온함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3월 19일 화요일

광야의 필요성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을 소생시키시고 — 시편 23:2-3a

존 뮤어^{JOHN MUIR}는 “수천명의 피곤하고
신경이 쇠약해진 지나치게 문명화
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집에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 합니다. 그 야생성은 필연적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자연 재해”
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술에 얽매어
있으며, 우리는 벌금을 지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에
누워서 물을 찾도록 하라고 강권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바쁜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체에 쏟아져
들어온 스트레스와 사고의 파편으로
이러한 속삭임을 놓칩니다.

외진 곳으로의 여행은 훌륭하지만, 야생의
필요성을 경험하기 위해 꼭 산, 해변 또는
푸른 목초지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마당, 지역 공원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거나 구름에 시선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의 호흡, 우리를 통해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야생인 자울 신경계와 흐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깊은
순간에, 우리는 창조와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의 주장에 항복합니다.

*선한 목자시여, 우리에게 누워서 평화를
경험하라는 주님의 속삭임에 유의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3월 20일 수요일

길을 찾아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
시는도다 — 시편 23:3b

한밤중의 보름 달 밑에서, 저는 고산
하이킹의 버디 시스템을 어리석게
무시하면서 북부 캘리포니아의
높은 샤스타^{SHASTA} 산을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어려운
등반을 할 수 있었고, 늦은 아침 폭우의
위험에 처하기 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들 바로 아래 캠프에
도착했을 때, 숲의 그림자가 오솔길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길 안내를 제공할
아무도 없는 고지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는
레인저 스테이션^{RANGER STATION}에서 본
비디오를 기억했습니다. “야영지 바깥의
원형 바위를 찾으십시오.” 나는 지평선을
찾았고, 계단처럼 그것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 . 내 순간의
공포를 감안할 때 천국의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삶의 도전에 맞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적인 길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식은
길을 안내하고 우리를 길 되신 그분께
인도합니다.

*거룩한 목자시여,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골짜기에서의 확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 시편 23:4

나는 사람들을 영적훈련으로 인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현존에 대한 분명한 본보기가 되는 어려웠던 일들을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두운 계곡을 통해 하나님이 안전하게 당신을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알콜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서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래된 격언이 말했듯이 뒤늦은 지혜는 20/20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천재는 지금 여기서 당장 상황에 관계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에겐 “든든한 뒤 백이 있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강력한 계획을 인정할 때 이것을 “지연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어렵פות한 그림자 속에서도 확신을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넘치도록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시편 23:5

위험 가운데에서의 잔치, 기름 부음의 풍성함, 선하심에 넘치는 잔 -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호화로운 묘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실천함에 따라 이러한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은 일상 생활에서 보다 규칙적인 배경이 됩니다.

넘치는 컵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불교에서 가져옵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1868~1912)의 선생인 난인^{NAN-IN}은 그를 만나러 온 어느 대학교수를 맞이합니다. 차를 대접하는 난인은 손님의 잔에 차를 붓고 또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교수는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이 컵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견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컵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챙김의 묵상^{MINDFULNESS}은 자기 중심적인 선입관을 우리에게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넘쳐 흐르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넘칠 때까지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3월 23일 토요일

우리에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시편 23:6

우리 자신의 행복과 내적인 평화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의 내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은 가족, 직장, 교회 및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를 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존재와 더 감사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펼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푸른 초원과 물을 찾는 훈련을 지키면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찬송가와 조화를 이룰 때까지 불안과 불완전의 고조된 음표로부터 바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선하심과 자비가 풍겨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풍성한 대사^{AMBASSADORS}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시여,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풍요를 대언하는 대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충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걱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의 해당 부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희망적? 감사함? 기쁨?

이제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 더 염두에 둘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십시오.





Third week in Lent

사순절 세번째 주

3월 24일 일요일

이번 주 주제: 우리의 풍부한 공급자
시편 65

그것은 15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거의 5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은 익숙한 가사를 매주일마다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으로 모든 은혜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매일의 진실성 속에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번 주 우리 사순절의 여정에서 우리는 시편 65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모든 육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 오리이다 — 시편 65:2

우리 인류는 우리 자신의 영리함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DNA 계통을 매핑하고, 씨앗의 유전 물질을 변경하고, 페트리^{PETRI} 접시에 생물을 산란시키고, 인공 지능의 경계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근원인 삶의 불꽃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홀로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모든 육체가 생계를 위해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꿈의 바다에 떠있는 동안 매일 밤 창조주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며, 우리의 마음이 뛰고, 우리의 피가 스스로 정화되고, 우리의 호흡을 들이켜고 내쉽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AREOPAGUS}에있는 아테네 장로들의 모임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을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사도행전 17:28).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일상적인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시편 65편은 우리의 본질적인 의존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노래의 다른 모든 절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 충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3월 26일 화요일

산에서 바다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 시편 65:6-7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마리아나 트렌치의 해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성한 산과 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봉우리와 대양 모두 우리 세계의 풍요로움에 기여합니다. 산은 유역^{WATERSHEDS}으로 작용하고 번성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며 지구의 날씨 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초기의 생명의 원천인 대양은 또한 우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행성 전역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합니다.

봉우리와 바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지구의 형성뿐 아니라 첫 번째 새벽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화의 과정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낙담하여 이 신성한 계획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시편 121편의 저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과 바다의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오늘 우리 삶에 보내주십시오. 아멘.





3월 27일 수요일

빛속에서 노래하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 — 시편 65:9a

최근 텍사스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땅이 서서히 말라서 먼지로 변한 다음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달나라 풍경처럼 보였고, 수분이 모자라고 절박했습니다.

비가 마침내 내렸을 때 나는 구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우리 마당에 서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안도감과 깊은 감사의 느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구를 가꾸시고 물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수인 로저 밀러 ROGER MILLER는 1972년 TV 특별 프로그램에서 대중 문화가 무언가를 전했지만 무수한 밈 MEMES에 잘못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비를 느끼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젖기만 한다.” 사소한 방법으로, 이것은 마음 챙김 묵상 MINDFULNESS의 사소한 여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풍성함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뺨에 비치는 햇빛, 우리의 머리카락을 감싸는 바람, 우리 계곡 위에 솟아나는 천둥 소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현존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3월 28일 목요일

삶의 지팡이^{STAFFS}

...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
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이다 — 시편
65:9b

최근의 여행에서, 내 아내와 나는
네브래스카와 캔사스를 여행했고
고속도로의 양 옆에 햇빛이 비치는 광대한
옥수수밭과 밀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왜 미국이 “세계의 밥통”이라고 일깨워
주는지를 말합니다.

곡물 및 기타 기본 식품은 인력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밀가루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쌀이나 옥수수입니다.
나는 인도의 문나^{MUNNAR} 마을이나
잠비아의 엔시마^{NSHIMA}(옥수수)에서 밥을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페루 쿠스코^{CUSCO}
의 열린 시장을 걷는 것을 기억합니다.
수십 가지의 모양과 색상의 감자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잉카^{INCAS}
의 3,000 종 이상의 이 영양 식단을
재배한 마추피추^{MACHU PICCHU}에서의 계단식
양식장의 폐허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지팡이^{STAFFS}에게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 지구를 괴롭히는 기근에 유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뢰의 지배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특권층의 풍요로운 사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하게 부여하는 풍성함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는 삶의 일꾼들
^{STAFFS}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29일 금요일

기쁨으로 둘러싸여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 — 시
편 65:12

우리는 기쁨을 과도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드물게 경험하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창조의 광경과
소리와 함께 기쁨을 연결함으로써 다른
진리를 열어줍니다. 기쁨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인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시대에 찬사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대상 MINDFULNESS의 가장 기쁜
결과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탄생입니다.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
둘러싸임”을 알려줍니다. “거드 GIRD”는
전투에 필요한 벨트로 허리를 감싸는
고어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물질주의의 이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방과
녹이 파괴되는 곳”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

이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몸을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강하여 성전 재건축을 한 느헤미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와 기쁨이 네 힘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 우리를 둘러싸게 하십시오.
아멘.

3월 30일 토요일

화음

...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시편 65:13b

이 찬송가에 어울리는 절정은 시편 65
편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목초지에서 하늘까지 모든 삶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헨리 밴
다이크 HENRY VAN DYKE의 불후의 가사로
우리는 찬송합니다, “새벽별의 노래따라
힘찬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영광 돌리세.”

우리 가족,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의
진실은 함께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과 조화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마음 챙김 대상
MINDFULNESS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화되는 수준에서 이 자유로운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창조의
모든 요소에 대한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조직에 꿰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서구적 사고가 자연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주의에
의해 멸종되기 직전에 있는 미국의 원주민
문화를 포함한 다른 전통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더 잘 할 것입니다.

오갈라 라코타 OGLALA LAKOTA의 의술가인
블랙 엘크 BLACK ELK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 평화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주와
모든 것의 단일성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현존하심과 조화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Fourth week in Lent

사순절 네번째 주

3월 31일 일요일

이번 주 주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시편 103

1600년대 중반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역사의 렌즈를 통해 정통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과 답변 (포함시키기 위해 여기에서 편집됨)은 모든 신앙 여정을 위한 아름다운 머리말을 제공합니다.

질문: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 즉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호화로운 선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좀 더 집중할 것입니다. 시편 103 편의 시를 통해 사순절 순례를 계속합시다.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물가로 오세요.

당신이 처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림의
그 부분에 머무르십시오.

몇 분 동안 이미지를
숙고하십시오. 어떤 생각인지
기록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떠합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십시오.

모든 섬유질 FIBER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시편 103:1

내 영적 여행 어딘가에서 나는 이 간결한 묘사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모든 자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시편 103편 시작 절수의 핵심을 포착합니다. 시편 65편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비친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로 변화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 묵상 MINDFULNESS 의 연습을 통해, 그것은 우리의 일상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쉬지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7)고 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언어적 청원을 우습게 만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 단계 (편집됨)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더 가깝게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따라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을 개선하기 위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 기도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수행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 fiber을 주님의 임재에 맞추어 주십시오. 아멘.

잊지 마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시편 103:2-4

나는 두려움에 기반한 저작물이 지배하는 종교에서 떠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새로 발견된 영성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을 강조하는 신학에서 창조의 본질적 선하심을 축하하는 신학으로의 전환입니다.

선하심? 만약 우리가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볼 수 있고 우리 세상의 많은 병들과 악들을 쉽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 계급주의, 폭력, 오염, 인류의 비인간주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희망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원점이 정의와 사랑과 온전함을 향해 불가피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풍성함, 즉 부활에 의해 영감을 얻은 믿음이라는 비전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치유하고 구속하시는지 분명히 합니다. 시편 103편은 이러한 유익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대한 당신의 자연스런 반응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감사와 찬양의 원천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의 치료 혜택을 누리도록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4월 3일 수요일

열정 플레이의 우리 부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
시는도다 — 시편 103:6

리차드 포스터 RICHARD FOSTER는 고전적인 책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에서 “예배는 거룩한 기대에서 시작되며 거룩한 순종으로 끝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식은 여러 면에서 순종을 창출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정이 필요한 가슴과 마음의 태도에 정교하게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편협함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어떻게 고통과 분열을 일으키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는 창조주의 모델을 따라 구원과 공의를 추구합니다. 주의 깊은 순종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공의를 위해 일하는 우리 자신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열정에 따른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간디의 수동적 정치적 저항, 도로시 대이의 비폭력 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사랑과 평화의 중심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이 공의를 위해 일합니다.

이 핵심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에 우리의 혼란을 단순히 덧붙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시끄러운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 정의를 위해 일하면서 진정으로
지속될 평화의 씨앗을 뿌리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4월 4일 목요일

사랑의 풍성함

여호와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
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
이 풍부하시도다 — 시편 103:8

마음 챙김 묵상(MINDFULNESS)은 우리
머리의 여러가지 생각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킵니다. 다양한 이론이 하루에 최대
6만명에 이르는 뇌파를 수치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두개골 내의 많은
교통량입니다. 우리 세계에 혼란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 사이에는 고요함의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닫는 곳입니다.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따라야 할
신성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
편에 나오는 이 고전적인 구절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싼
변덕스럽게 분노한 신들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성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은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탄원에서 절정에 달하는 “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와
같이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은혜를 모델로 삼으므로 우리가 창조주의
모형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비로우며
은혜롭게 행동하도록 선택하게 도와소서.
아멘.



4월 5일 금요일

흙에서 흙으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차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4

시편 103편의 14-16절은 우리의 필멸을 시적으로 상기시키는 많은 절수 중 일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지난 날의 위대한 성서주석자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누가복음의 예수님께서서 치료하신 10명의 나병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동적인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고, 서로가 적대적 사이였지만 공유된 상태였기에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바클레이는 “홍수가 한 나라에 퍼지면 야생 동물들이 더 높은 땅에서 안전을 위해 모이면서 천적인 다른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서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다른 평상 시에는 서로를 죽이기에 최선을 다할 동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한 높은 근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까?”

친절한 사람들은 우리의 공유된 인류가 계급, 인종 및 민족주의의 인공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를 묶어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화합을 추구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상고하며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키우게 하십시오. 아멘.

4월 6일 토요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 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 시편 103:15-16

나는 묘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나는 종종 뉴올리언스의 우아한 조각상에서부터 산환^{SAN JUAN}의 오래된 묘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묘지를 돌아다니며 텍사스 시골 지역의 겸손한 곳들을 방문합니다.

최근에, 나는 이끼로 덮인 풍화된 석회암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비문을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Mr. & Mrs. A. G. Haab 의 아기, 출생 및 사망, 1920 년 1월 2일 잠들다...

이름없는 자녀의 하나님, 그대는 결코 이 삶의 절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결코 사랑하거나, 웃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결코 꽃 냄새를 맡거나 그대의 얼굴로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존재의 문제에 대해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비문은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들을 맛보십시오!

나는 아기 하브의 비석에 장미를 놓고 묘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에 의해 날아간 구름들이 태양을 가로 질러 몰려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Fifth week in Lent

사순절 다섯째 주

4월 7일 일요일

이번 주 주제: 편재하는 OMNIPRESENT

시편 139

마우이의 팔라파라 호마우 PALAPALA HO'OMAU
회중교회의 근거로 찰스 린드버그 CHARLES LINDBERGH
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대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가 영웅이었고, 나치
동조자였습니다. 전쟁 전술에 관한 컨설턴트였고
혹등 HUMPBACK 고래와 같은 종을 보존하는 환경
운동가였습니다. 그를 마우이로 데려온 것은 거대한
혹등 고래들이었습니다.

그의 간단한 묘비에는 끌로 새겨진 단지 두 개의
비문이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1902년 출생, 마우이에서 1974년 사망

내가 아침의 날개를 타고 바다의 가장 먼 부분에
거하게 되다면

후자는 시편 139편에서 나왔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편재를 찬미하는 서사적인 노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여정을 계속합시다 ...

비시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멈추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십니까?

지금 시작하고 그림에
집중하십시오.

나무가 많지만 처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진의 그 부분을 유지하십시오.
어떤 색깔이 생생합니까?

어떤 모양이 새롭게 보입니까?
어떤 질감?

몇 분 동안 이미지를
숙고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기록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마치면서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묵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기도하십시오.



4월 8일 월요일

깊이 알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 시편 139:1-2, 4

하나님을 추상적 개념으로 믿는 것 (빅뱅의 불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9편의 가장 멋진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편재 할뿐만 아니라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말했듯이, 창조주는 매일매일 작은 생명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의 빛에서 보았을 때, 마음 챙김 **묵상** MINDFULNESS의 여행은 충만과 기쁨의 근원을 가장 잘 아는 것과 열정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에 자신을 맞추게 하여 주소서. 아멘.





4월 9일 화요일

여기, 저기, 모든 곳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 — 시편 139:7, 9-10a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도망 갈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좌절감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숨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공들인 **OVERWROUGHT**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를 통해 호흡하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뛰는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현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모니와 빛을 향한 견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고대의 길을 찾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투쟁합니다. 그녀의 흉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12 스텝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고집으로 나는 온 우주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는 내가 내려놓음을 배우면서, 나는 우주가 나와 협력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는 나에게 매일 놀라움을 가져온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지속적인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10일 수요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11-12

경험보다 좋은 선생은 없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목회지에서 사람들의 고뇌와 슬픔과 비극에 직면했을 때, 나는 요한복음 1장 5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고 어둠은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비틀 거리는 때 우리는 결단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부서진 상태와 자기 파괴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것은 어둠속으로 떨어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팔이 나를 잡아 주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9편에 있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 **ALCOHOLICS ANONYMOUS**의 약속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계시며,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4월 11일 목요일

경건하게 창조됨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 . .*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 — 시편 139:14a*

이 말은 경건이 상호적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윗이 즐겁게 외치며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경외롭게”을 “경건하게”로 번역합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이는 우리가 창조된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든 창조, 특히 동료 인간에 대한 이 존경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마고 데이^{IMAGO DEI}의 모습을 기억하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세계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대신, 우리는 계급, 인종, 국적 및 정치 이념의 결점 선을 따라 계속 분리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죄성에 면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SNAP - 멈춤^{STOP}, 느낌^{NOTICE}, 집중^{ATTEND} 그리고 전환^{PIVOT}이라는 약어를 기억하십시오. 판단을 멈추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전의 경험, 고통스러운 기억, 두려움 또는 분노와 같은 판단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판단을 불러 일으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오 성령님, 독특한 삶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경건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12일 금요일

마지막에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
나이다 — 시편 139:18b*

수년간, 나는 회중의 의무에 더하여, 호스피스 원목으로 봉사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지만, 종종 내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동등하게 귀중한 존재이며, 나는 아무런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있습니다. 나는 비극을 무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는 모습에 대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나눕니다.

나는 마샤^{MARSHA}를 생각하는데 그녀는 죽기 24시간 전에 손자를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화학 요법의 치료로 벗겨진 상태로, 그녀는 각 머리에 그녀의 약한 손을 얹고 그들에게 평생 동안 머무를 사랑의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루스^{RUTH}가 죽기 몇 시간 전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크린^{KRIN}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4월 13일 토요일

매일의 집행유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
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
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
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편 139:23-24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며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139편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상기함이
적절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것은 종종 신조와 교리의
문제입니다. 내 밀레니엄 아들인 피테르
PIETER는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의
뇌 부분을 계산하여 믿음에 대한 진술을
하기를 꺼립니다.”

내 자신의 회복 과정 중 알콜중독자
모임의 책자^{AA BIG BOOK}에서 나를 인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대한 매일의 집행유예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마음 챙김 묵상^{MINDFULNESS}
으로의 여정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건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
분개함 및 스트레스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속인 평온과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확실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그것을
연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앞서거나 뒤쳐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임재 속에 안식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비지오 디비나 VISIO DIVINA

묵상 안내 GUIDED MEDITATION

고난주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당신이 3~5
분간 예술로 기도했다면, 그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서 당신을 집중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의 어떤 부분에 당신의
시선이 놓여 있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묵상을 마치십시오.

Holy Week

고난 주간

4월 14일 고난주일

이번 주 주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인생의 사실상 어떤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고 계셨으며, 아마도 그의 부모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떻게 조상들의 영적 진리를 자유롭게 간결하게 언급했는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정의 마지막 날로 나아감에 따라 시편을 통하여 십자가 위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계속합니다.

4월 15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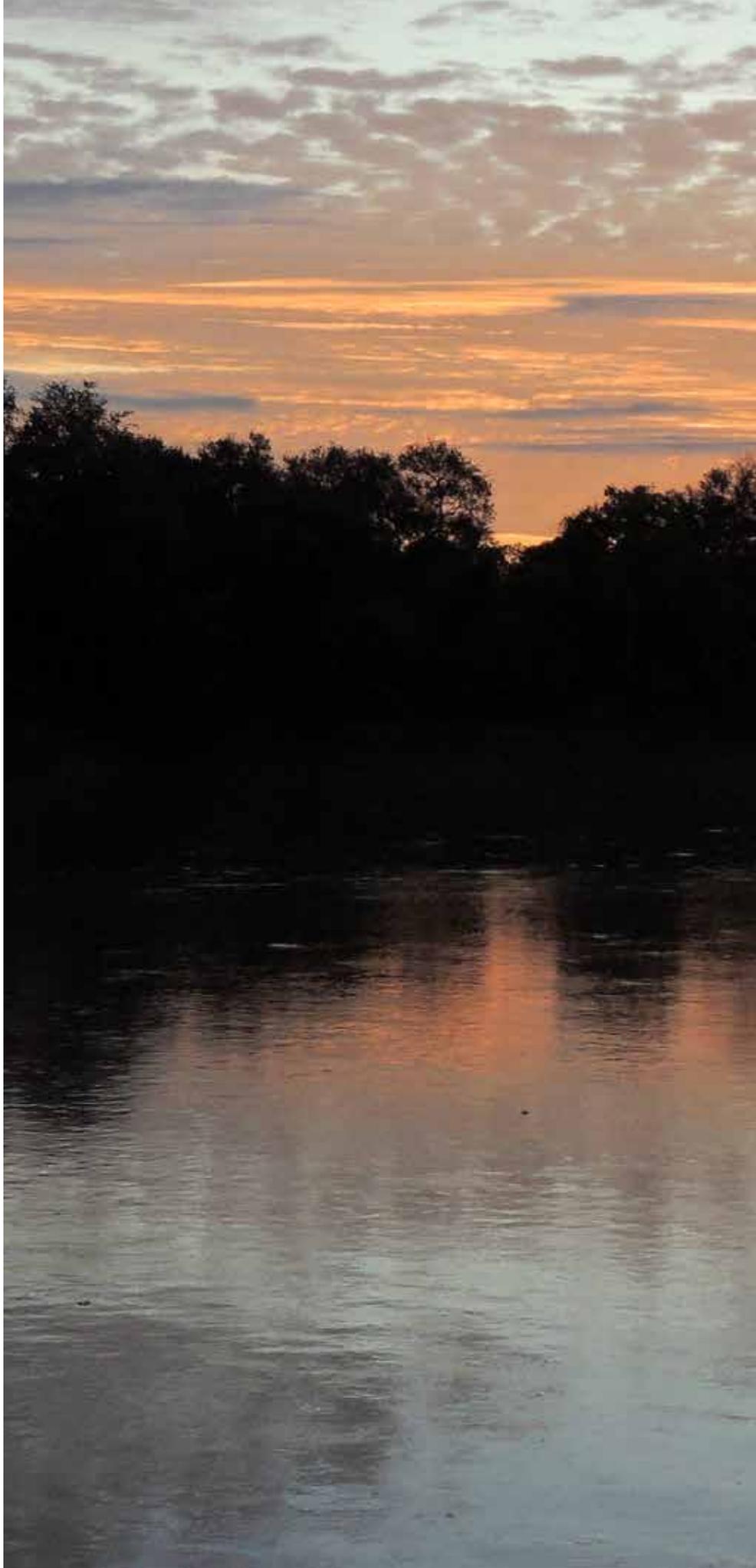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시편 8:2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즉시 성전에 가십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그는 성전 뜰을 계산대로 바꾼 화폐 교환용 책상을 뒤집습니다. 눈이 먼 자가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한편, 성문 앞의 아이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든 나세렛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를 결코 읽지 못했습니까?” 시편 8편은 약간 변형되어 압박과 대결의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입술에 자연스럽게 옵니다. 게다가, 그의 해석은 매력적입니다. 그는 다윗이 언급한 산성 BULWARK을 찬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정신의 적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의 그 열정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의 삶과 우리 모두에게서 살아있는 말씀의 힘을 배우게 하십시오. 아멘.



4월 16일 화요일

예상치 못한 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나니 — 시편 118:22-23

예루살렘 바로 밖의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의 사역이 선동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그는 아침에 다시 오십니다. 그는 두 아들의 비유와 사악한 세입자들의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하면서 힘있는 자들의 사역에 대해 열심히 거부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는 시편 118편에서 이 말씀으로 그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건축업자가 거부한 돌은 주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목수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음 이야기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며 세상이 버린 것을 취하여 큰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정의로 인도하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은 도시 밖, 쓰레기 더미 위 언덕, 두 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높이 들어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17일 수요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 시편 82:6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에 대한 가장 심각한 혐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느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임을 어떻게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과 자신의 신성한 지위에 관해 논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편 82편에서 이 신비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모임에 계시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모두 신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 라고 야훼는 말합니다.

시편 기자와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는 “G”라는 대문자가 신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인간이며 신성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에 굴복함은 우리의 신성한 존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통된 인성뿐만 아니라 공통의 신성에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 삶의 육신을 입고 고난을 겪을 때 거둬하여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양육시키는 떡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 시편 78:24

우리는 이 날을 세족목요일^{MAUNDY}

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 식사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식사에서 그는 떡과 잔을 통해 그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합니다.

떡은 예수님 사역의 상징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요한 6장에서 5,000 명을 먹이신 후에 그는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그를 따르는 군중을 만납니다. 그는 시편 78편을 사용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상기시켜 하나님을 그들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불멸의 말을 사용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상징의 의미는 결코 신학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뢰와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만족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대체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 주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열정이 주님 존재의 자양분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십시오. 아멘.

어두운 시간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시편 22:1

예수님의 열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합니다. 분명히, 이 중 하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고문 TORTURE의 위협조차도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 있다는 새로운 길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를 영원히 바꿔 놓은 십자가의 어두운 순간에 그의 고뇌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짧은 인생에서 여러 번 해봤 듯이 그는 시편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창조주와 분리된 고난의 고뇌를 전합니다. 복음서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전체 지구를 덮고 있는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단지 위로를 위해서 간단하게 낭송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성육신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끔찍한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구세주를 인간적으로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려는 주님의 의지에 경외감을 포함합니다. 아멘.





4월 20일 성토요일

주님의 손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
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
량하셨나이다 — 시편 31:5*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육신의
충만함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는 그의 죽음을 계획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을 독사와 회 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잔인하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는 영원한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의 완성을 이해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의 신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면서 행동과 반응의
오래된 카르마의 KARMIC 사슬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범주를 초월하는 자유로운
사랑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또한 무조건의
사랑으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마음챙김 묵상 MINDFULNESS
의 평생여행으로 초대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은 누가복음 23장 46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펼쳐지는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시에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aster Sunday

부활 주일

4월 21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시편 150

이날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마음 챙김 묵상^{MINDFULNESS}의 길로 인도합니다. 장엄한 찬양과 찬송을 마지막 시편으로 종결함이 얼마나 어울립니까? 전체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 별과 은하, 바람과 비, 산과 바다, 나무와 포도원, 모든 생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아!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힘 입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반영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Walking with Beauty

아름다움과 걷기

저자 및 사진 작가 소개

Krin Van Tatenhove는 호스피스 채플린, 네바다와 텍사스의 약물 남용 상담가, 신문과 잡지 작가, 및 30년 이상 장로교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Neighborhood Church: Transforming Your Congregation into a Powerhouse for Mission*의 공동 저자입니다.

재판

제한된 수의 재 인쇄가 가능합니다.

싱글 카피, \$ 5; 2-9 부, 각각 3.75 달러;

10-99 부, \$ 2.75; 100 개 이상, \$ 2.15,

운송 및 취급비용 추가.

800-533-4371로 전화하여 17116-18-008

번을 주문하십시오.

www.pcusa.org/2019lent 에서 온라인 주문

Copyright © 2019.

All rights reserved.

Presbyterians Today

Presbyterian Church (U.S.A.)

성경인용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함